

'남미 첫 축제' 리우올림픽 내일 오전 개막

207개국 1만500여명 선수 참가 28개 종목 금메달 306개 두고 경쟁... 한국, 종합순위 10위 목표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오는 6일 오전 8시(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올림픽은 동·하계 통틀어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열린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난민팀을 비롯해 세계 207개국에서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최대 지구촌 축제를 벌인다.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새롭게 정식종목으로 추가돼 총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6개를 두고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리우의 바하, 데오두루, 코파카바나, 마라카낭 등 4개 권역의 32개 경기장에서 벌어진다. 축구는 브라질리아, 사우바도르, 상파울루, 마나우스 등에서 함께 열린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 종합순위 10위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삼은 한국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총 204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정몽규(54) 선수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으로 '10-10'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대회 초반부터 한국의 금빛 메달 레이스가 기대된다.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사격, 양궁, 유도, 펜싱 등이 대회 초반에 열려 선수단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권도, 레슬링, 배드민턴 등에서도 호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정 선수단장은 "초반에 우리의 메달 기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대회 초반 일주일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초반부터 메달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뉴 월드(New World)'다. 브라질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화합을 강조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근 개최식에 출연할 유명 인사들을 공개했다.

전설적인 사바 가수 엘사 소아레스, 12세 영재 래퍼 MC 소피아가 모델 지젤 번천, 레이 T와 함께 개최식 하이лай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인 샴바에서 대표적인 여가수로 꼽히는 소아레스는 캐롤 쿤카, MC 소피아 등과 함께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 조직위는 "세계적인 모델 번천이 생애 가장 많은 관객 앞에서 캣 워크를 선보일 것"이며 "레이 T는 올림픽 개최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첫 번째 트랜스젠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선수단은 포르투갈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개최식에서 52번째로 입장한다.

한국 선수단은 선수 204명, 임원 129명 등 총 333명으로 꾸러졌다. 개최식 기수는 펜싱 남자 국가대표인 구본길(27·국민체



4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개막식 리허설 중 불꽃이 터지고 있다.

육진흥공단)이다.

그리스가 첫 번째로 입장하고, 북한이 156번째로 선보인다. 이번에 처음 출전하는 난민팀은 206번째, 개최국 브라질은 제일 마지막인 207번째에 입장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성화의 최종 점화자는 개최식 현장에서 공개된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76)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 테니스 스타였던 구스타보 쿠에

르텐(40), 올림픽에 5차례 나서 금메달 2개(1996년·2004년)를 딴 요트 선수 출신 호베르트 웰리트(43)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최근 브라질 언론 글로보 에스포르트가 실시한 '성화 최종 주자로 누가 나서야 하느냐'는 설문 조사에서는 쿠에르텐이 총 7만9007명의 참가자 중 38.69%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펠레는 11.16%로 4위에 그쳤다.

/김민근기자

내일부터 장수승마장서 전국생활체육승마대회 개최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승마대회가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장수승마장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승마협회, 전라북도승마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수군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마장마술-IV Class(Preliminary)를 시작으로 릴레이-2 단계경기, 장애물-IV Class(100cm), 장애물-II Class(80cm) 경기로 치러진다.

장수승마장은 부지면적 165,314㎡에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238칸의 마방과 888석의 관람석이 갖춰져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춘계·추계 전국승마대회, 전국국산마 승마대회 등 각종 국내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장수=고판호기자

전북 스포츠과학센터 9월말 본격 개소

2010년 전국시도 최초로 운영된 전북 스포츠과학센터가 6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국가대표 선수에게만 국한되던 스포츠과학의 혜택을 일반 시도 엘리트선수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전북 스포츠과학센터는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 최고의 톨 모델로 부상했다.

도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은 "스포츠과학센터를 통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처럼 국가대표로 성장할 꿈나무를 발굴하고 전북 선수들에게 체계적인 스포츠과학 시스템을 적용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야구 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국내 최대 인기 스포츠인 야구가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29차 총회를 열고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등 5개 종목을 2020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이 된 야구는 2008 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에서 빠졌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열리지 않았고, 이번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도 없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에 돌아오는 것이다.

프로 선수를 주축으로 대표팀을 구성한 한국은 2000 시드니올림픽에서 동메달,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인 만큼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 명승부가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IOC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도쿄올림픽에서 5개 종목을 추가해 총 33개 정식종목을 치르기로 했다. 리우올림픽의 정식종목은 28개다.

/김민근기자

리우올림픽 축구, 연장전 승부 4장의 교체카드 사용 가능

'3+1' 교체카드 도입 이번 대회 처음... 8강부터 적용

리우올림픽에서는 연장전을 앞둔 상황에서 교체카드 3장을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5일(한국시간)부터 시작되는 2016 리우올림픽 축구에서는 연장전 승부에 한해 4장의 교체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토너먼트 승부에서 정규시간 90분 동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명의 선수만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전에 돌입하면 한 장의 교체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다.

8강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 16개국이 출전하는 올림픽 축구는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8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

올림픽 축구를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미 지난 3월 이같이 결정했다.

FIFA 주관 대회에서 '3+1' 교체카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FIFA는 이번 대회에 시범도입해 성과를 지켜본 뒤 제도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낯선 규정이 아니다. 올 시즌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는 연장 승부에 한해 4번째 교체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시뮬레이션 반칙에 벌금을 부과한다. 퇴장을 당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한 경기에 경고 2장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단, 4강전부터는 앞서 받은 카드 전력의 소멸된다.

대회 공인구는 아디다스의 '에레조타'다. 올 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서 사용되는 공이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5월30일 소집훈련



5일 한국과 피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 경기가 치러질 사우바도르 폰테 노바 아레나 경기장의 모습.

때부터 에레조타를 사용했다. 리그 C조 1차전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5일 오전 8시 피지와 대회 조별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